

USPS의 첫 여성 CEO

이 종 탁*

꼭 1년 전 이 지면에 버즈피드(BuzzFeed) 기사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기사를 무엇에 좋은 몇 가지, 혹은 무엇무엇 하는 몇 가지 하는 식으로 써 리스트클(List+Articl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 매체가 미국 우체국에 대해 쓴 기사다. 제목은 ‘당신이 깜짝 놀랄 20가지 미국 우편 이야기(20 Facts that will shatter your perception of the US Postal Service)’.

버즈피드는 이 우편 리스트클의 하나로 미국 역사상 여성 우정청장이 없다는 사실을 꼽았다. 여성 대통령까지 배출할 뻔 했던 나라, 다음번엔 진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역대 우정청장 중 여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버즈피드 기사에 영향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3월 미국 우정청(USPS)에 여성 CEO가 탄생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탄광마을 포트빌 출신으로 업무최고책임자(COO)를 맡고 있던 50대 중반



의 여성 메건 브레넌(Megan Brennan)이 제 74대 우정청장(Postmaster General)에 취임한 것이다. USPS도 첫 여성 청장의 탄생을 감격스러웠는지 보도자료에 여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썼고, 언론에도 이 점이 부각돼 보도됐다.

* 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jtlee1024@naver.com

그렇다면 브레넨은 누구인가? 세계 우편물의 40%를 배달하는 기구, 종업원 40여만 명에 기업규모로 따지면 세계 45위에 해당하는 거대 공룡기구를 대표하는 자리에 무명의 여성 CEO가 등장했음에도 그에 대한 인물 정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은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새 우정청장, 그것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청장이 취임을 했으면 인터뷰 기사 하나쯤 나올 법도 한데 무슨 까닭인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상보(詳報)는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 대로 눈에 띄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는 1961년생 아니면 62년생이다. 포츠빌에서 고교 다닐 때 농구선수를 했다는 것, 이마쿨라타 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우정청에 입사, 펜실베이니아의 랭카스타 지역에서 집배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29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중간에 MIT에서 MBA를 받았다. 하나 반가운 것은 동북아지역 물류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을 갖고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브레넨 집안이 우정 가족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의 두 형제와 아버지가 포츠빌에서 집배원 또는 직원으로 일한 바 있어 가족의 우체국 경력을 합하면 125년에 이른다. 대를 이어 우체국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우정의 최고책임자가 된 것이다.

브레넨의 CEO 임명은 세 번 연속 내부 승진 케이스다. 전임자 패트릭 도나휴, 그 전임자 존 포터가 모두 우체국 말단직원에서 시작해 최고책임자에 올랐기 때문이다. 미 우정청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초대 청장으로 배출한 역사와 전통의 기관이다. 최근 세 번의 CEO를 제외하면 250년 역사상 내부 승진이라고는 겨우 다섯 번밖에 없었다. 유력 정치인들의 눈에 우정 CEO가 더 이상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뒤집어 말하면 미 우정청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우정사업의 위기상황이 브레넨과 같은 우정인에게서는 출세의 기회로 다가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USPS의 CEO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업의 이사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이사회가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9명이 우정청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뜻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사회에서 새 우정청장을 뽑으면 그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10명의 이사진을 구성, 부(副)청장을 뽑고, 부청장을 다시 이사회에 포함시켜 총 11명의 이사진으로 운용하는 게 USPS

의 지배구조다. 다만 현재는 USPS 이사회에 여섯 자리가 공석이다. 이사의 임기는 7년이나 순차적으로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자를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남은 이사진에 권리를 위임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한다.

우정인의 관심은 브레넨이 산적한 과제들을 어떤 정책과 방안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쏠려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정사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 우정이라는 게 사업의 속성상 다소 거칠게 느껴지긴 해도 CEO의 남녀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전임자나 그 전임자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본질적 이유는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USPS의 CEO는 임기가 없다. 포터 청장은 10년, 도나휴 청장은 5년간 재직했다. 브레넨 청장은 과연 얼마나 오래할까. 첫 여성 우정청장의 장수를 빌어본다.